

국어국문학과의 교육 현황과 개선방향

박 종 철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한 국의 근대로의 진입에 크게 이바지한 대학교육의 오랜 역사에 비해 국어국문학과는 연혁은 비교적 짧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에 의한 주체적인 한국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교육 및 연구는 1945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나마 일본 식민지를 벗어난 광복 직후의 1945년 후반과 이어지는 6·25 전쟁으로 고통받게 된 1950년 초반까지는 대학 교육이나 학문 전반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었으므로 국어국문학과의 설정이라는 전기는 1950년대 후반에야 마련되었다. 대학교육에서 안정된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각 대학에는 국어국문학과가 앞을 다투어 설치되었고, 그 이래 현재까지 국어교육과와 국어학

과를 제외한 전국의 국어국문학과의 수는 94개 학과를 헤아린다.

광복 50주년을 맞는 1995년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국어국문학과의 이와 같이 양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확대를 해온 점은 인정되지만 문화와 역사에 상응하는 교육과 연구라는 차원에서는 변화가 기대를 따르지 못한 면이 있다. 즉, 설치학과 수 및 학생수의 증가라는 측면에 비해 교육시설의 확충이나 졸업생들의 수급 문제, 시대의 변화에 상응하는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국어국문학과의 정착기였다 할 60년대 이래 극히 부분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변동이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특히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는 국어국문학의 발전이 우리의 언어와 문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 미래의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확고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어국문학과와 성격

국어국문학과와 성격은 “한국인들이 자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와 그 언어를 매체로 구술되어 전승된 구술 문학, 그 언어의 문자를 매체로 기술된 여러 갈래에 걸친 문학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조직된 학과”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즉, 교육과 연구는 한국의 언어와 문학을 대상으로 하며, 이 과정을 통한 기본적인 성과는 한국 사회의 기간 인력을 형성할 인재들의 윤리관, 국가관 및 민족 주체 의식 등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기본 성격을 갖고 있다. 둘째는 타학문의 이해와 기술 및 표현을 위한 기초 학과로서의 성격, 셋째는 한국어와 한국문학의 연구나 교육을 위한 인력 양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근대적인 형태의 대학교육으로서의 국어국문학과와 설치의 1926년 현 국립 서울대학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의 본과 창설과 함께 시작된 조선어문학부에서 비롯한다. 이 조선어문학부는 1945년까지 15~16회 졸업생을 배출하여 우리 국어국문학 연구에 업적을 남기기는 했으나, 식민사관에 입각한 연구방향의 왜곡된 설정이나 이에 의한 잘못된 학술용어의 답습이 끼친 폐해는 이후의 본격적인 수차례의 시정단계로도 극복되지 못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국어국문학과와 발전은 1946년 8월 현 국립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사립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설립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3. 교육과정 현황 및 개선방향

1) 현 황

1994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국어국문학과 수는 94개, 학생수는 4,465명이다.

국어국문학과와의 개설 현황으로 보아 쉽게 짐작되듯이 우리 대학이 식민지 체제에서 출발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되어온 대학개혁은 학과와 개폐, 정원 조정, 학점의 증감 등 형식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학과와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변화에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 국어국문학이라는 학문의 관점에서는 식민사관의 시정이나 민족 주체적인 시각과 외국 서구 이론 수용의 조절, 통시적 이론과 공시적 이론의 분별에 의한 부분과 전체의 유기적인 조망 등 단계적인 진전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학과목의 조절 등 교육과정에는 미처 반영되지 못했다. 그 한 예로 문학에서의 갈래(장르) 이론은 이미 4갈래 이론이 인정되고 있는데도 아직 교과과정이 설정되던 50년대의 3갈래 이론에 입각한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고, 고전과 현대의 분류도 식민사관인 역사정체론의 문화이론인 이식(移植)문학론의 입장에서 이루어졌고 고전에서 현대로의 연결이 결여된 채이므로 교과과목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태를 담보하고 있다.

과거의 통제와 지시 일변도의 학과 및 학사 운영에서는 현실적 요청의 제도적 반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그간의 격차를 언젠, 어떻게, 얼마나 줄여나가게 될지는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관심사이다.

2) 편성 및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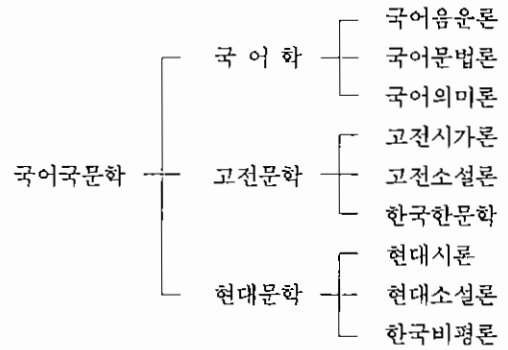
연구의 실제 성과에 뒤떨어진 교과과정은 그 분야의 학문 발전과 인력 양성의 괴리를 초래하고, 결국 이러한 상황은 다시 학문 발전까지도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국어국문학과 학문적 발전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교과과정과는 어떠한 거리가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생겨난다. 문제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① 각종 서구 이론의 수용에 대한 반성
- ②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이론적 접맥
- ③ 한국한문학에 대한 평가 내지 활용
(국문학의 범위문제 포함)
- ④ 국어학과 국문학의 연계적 접근 문제
- ⑤ 실용적인 기능 교육의 측면

1988년 한국 국어국문학회 31회 연구발표대회의 주제였던 ‘국어국문학에 수용된 구미 이론의 검토와 반성’에서도 여러 분야에 걸쳐 검토된 바 있지만, 우리의 서구 이론의 수용 문제는 문제의 층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여러 각도에서 면밀하게 검토될 문제거리이다. 외국 이론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종도 문제이지만 무조건적인 배척이라는 알레르기적 반응도 문제인데, 이유는 애초에 근대의 출발이 과거 전통을 배제한 서구화와 동일시했던 식민사관을 배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식문화이론 근대화이거나 현대화라는 공식은 시정되어야 가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래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한 한국 전통의 순수성만으로 학문이 성립된다는 것은 이상에 불과할 뿐더러, 아무리 그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로서도 역사의 한 단계에 족적을 남긴 한 시기의 학문적 성과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어서 실제 연구 결과는 자신이 내세우는 명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대학에 설치된 과목을 연구 영역별로 대

별하여 보면 대략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각 대학 설치과목의 영역별 분류

이것은 60년대 초에 성립된 후 지금까지 별변동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는 국어국문학과 교과목의 기본골격이다. 이러한 삼분법으로 교과과정 편성이나 교수요원의 구성이 이루어졌고 이래로 굳어진 관행이 되다시피 하였다. 이 분류체계에는 적어도 문화정체론이나 이식문화론을 내용으로 하는 식민사관의 문제와 서구이론 수용 및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접목문제가 동시에 관련되어 있다.

외국이론의 수용문제를 그림에서 살펴보면 가장 오른쪽의 세목은 문학의 3갈래 이론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것도 연극이 빠지고 ‘한국한문학’이나 ‘한국비평론’이 들어간 불안정한 상태이다. 현재 수용되어 연구와 교육에 쓰이고 있으며, 한국 독자의 갈래이론과 접목될 단계에 있는 4단계 이론은 교과목의 기본 체제에 반영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 중간 분류인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구분은 오랜 관행인데 시대상 구분으로 일견 무난한 것 같아 보이지만, 고전과 현대가 단절되었다는 이른바 전통단절론의 대표적 병폐이다. 명제상으로 이미 수정된 식민사관 또는 문학 이식론이 버젓이 남아있는 현상이고, 국문학 연구의 쟁점으로

드러나 많은 연구 성과를 내었으면서도 아직껏 전공분류나 학과목 명칭 분류 등 실제 활용에서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형편이다. 제일 큰 분류인 국어학과 국문학의 연계 문제도 만만치 않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역시 명제상으로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연구자들의 영역별 관성에 의해 실질적인 타개에는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학문발전의 본산이자 인력양성의 장이기도 한 대학은 모든 학문이 학문 그 자체로서 머물지 않고 사회로 나아가 활용되고 연결될 것을 시대로부터 요청받는다. 이는 학생진로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큰 분류에서 별도로 설정하거나 기존 과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부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 교과목 개발과 협동 강의의 활용방안

교과목 설정 문제는 구체적인 필요성의 부합만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점이 병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리 세분화된 과목이나 내용도 결국은 문학·역사·철학을 총괄하는 종합상태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문과학의 특성이다. 따라서 교과목의 분류체계가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긴밀하게 연계되는 골격을 유지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교과목끼리의 협동이나 학과간의 협력을 통해 중복되는 것을 줄이는 한편으로 필요한 공백의 충진도 가능하게 된다.

거의 모든 국어국문학과에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있는 문학개론이나 언어학개론, 문학비평론 등은 대체로 다른 외국문학과에도 각각 별도로 개설되어 있는 형편이고, 그 내용도 거의 중복된다. 또 비교문학론과 같이 아예 처음부터 타영역과의 비교가 선행되어야 하는 과목은 다수 강의 담당자가 이상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제도에서는 그러한 연계가 실현되기 어렵

고, 특히 타학과와의 공동 강의 담당은 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와 같이 자기 영역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연구자를 거론하지 않는다거나 타연구영역 자체의 언급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점차로 스스로의 연구시점을 좁혀 자신의 연구 효율을 떨어뜨리고 성과를 낮추게 된다.

그 외에 타학교와의 협동 강의는 대학원의 경우 공동 이수제를 두어 담당교수의 인력 확충과 학교간의 폐쇄적인 학풍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의 파급은 타학교 타학과와의 교류 등으로까지 발전될 희망을 가져보게 한다.

4) 전공 영역의 다양화

국어국문학과 학생의 진로는 교직, 신문이나 잡지사 기자, 출판사 편집자, 사보 편집실 등이 있는데, 그 외의 직장에서든 국문과 출신이라면 정확하고 창의적인 문장력의 구사, 어문학 실력 및 신문·잡지의 편집 능력, 어법과 맞춤법에 관한 지식과 한자교정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행 국어국문학과 교과편성만으로는 실제로 습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는 새로운 교과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① 교직 진출

학년 정원의 30% 내의 성적 우수자에 한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대학원 진학

국어국문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이수한 후 국어국문학의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자로 활동할 자질을 수련하게 된다. 국어국문학의 본령이 연구하는 전문성을 가지므로 학과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대신 자신의 연구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강의 배분 등이 불평

등하게 되는 경향도 있으며, 이에 따라 교과목 개설의 편중이 유지되기도 한다.

③ 작가 지망생을 위한 문학창작 지도

문예창작과가 개설된 학교가 별도로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진 강의 담당자가 없을 경우 무시되어온 분야이다. 이론 연구에 이웃한 평론의 경우에는 간혹 조심스럽게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창작의 본영역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대학교육에서 전면으로 인정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시나 소설, 수필의 창작은 전문적인 연습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창작 기법은 물론 이론의 실습적 수련도 학문연구와는 격차를 두고 취급되어 왔다. 근래에 창작 능력과 학문적인 이론을 겸비한 연구자들이 적잖이 나타나 이 영역의 강의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④ 언론계 진출을 위한 기본지도

각 대학마다 설치되어 있는 신문방송학과와 중복되지만 국어국문학과는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필요한 영역의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고 보이므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 분야에 대한 교과목의 배려가 요청된다. 특히 실제 기술 교육을 전제로 하는 신문방송학과와 구별되는 총체적인 시점의 교과목 개발도 필요하다.

⑤ 출판·문화계 진출을 위한 편집 실무지도

도서 출판 업계에서 편집이나 기획을 담당하는 경우는 편집실무만이 아니라 기획 등 출판 전체를 관장하게 되므로 타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 내에서 미래를 관망하는 비전도 필요하다. 이에 대비한 기본 지식의 축적이 실무 수련 못지 않게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⑥ 홍보 및 광고업계로의 진출 지도

광범위한 시야와 지식을 바탕으로 광고문안 작성 등 효율적인 홍보 기술의 습득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해야 한다.

현재는 이 모든 영역에서 기본 작업이나 정보교류 등이 컴퓨터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워드프로세서의 조작은 물론 통신 등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자신의 전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고려해볼 만하다.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은 학문과 예술의 발전 및 변화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에는 반드시 이러한 체제의 활용범위를 넓혀 나가려는 시도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5) 대학의 특성에 따른 특정 영역의 육성

사회 진출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을 담당하기에는 기초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국어국문학과와 영역 배분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과목의 내용을 순환제로 교체시키거나 학교별로 특정한 분야를 선택해 교육을 담당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학별로 특성을 부여하는 방안은 기술 교육만이 아니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시문학, 소설학과 극문학, 구술문학 등의 세부 분류를 포괄하는 문학 분야 강조, 작문 분야의 강조, 국어학 분야의 강조, 창작 분야 등 기능 교육의 강조 등의 특성을 살리는 방안도 강구해볼 만하다.

대학별 특성 부여와 함께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국문학이나 국어학의 타분야와의 연계이다. 여성작가의 문제, 문학과 대중문학, 문학과 사회, 문학과 역사, 문학과 영화, 문학과 이데올로기 등 심리학·철학·역사·타예술과의 관련성이 학과의 관심 시야를 확장시키고 학문연구가 현실 생활에서 괴리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6) 교양국어 과목의 활성화

학문의 기초로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에

해당하는 교양국어 과정은 국어국문학을 포함한 타전공 학과의 기초 과목으로서 지금까지 각 학교마다 지정되어 과목이 개설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획일적인 교양국어의 내용은 좀더 구체적인 영역으로 교육을 집중시킬 필요성에서 각 학교마다 과목 내용의 자율적인 조정이 행해지고 있는 듯하다. 이전부터 교양국어 1·2 안에 작문, 강독, 국어학과 고전문학, 현대문학, 한문학으로 세분되어 강의가 이루어지거나, 아예 과목명을 세분화하여 작문을 강의와 연습으로 구체화·심층화하고, 문학의 이해와 감상 및 언어의 이해 등으로 분리하여 심층적 이해를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한 대학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체제나 내용을 고수한 교양국어의 경우는 과목 개설의 의의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고,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은 우선 표현과 기술의 측면을 심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작문 과목에 역점을 두거나 과목을 분리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교양국어가 설 자리를 잃고 대치 과목 등을 모색하게 된 배경에는 과목 자체도 전체적인 교과목과의 관계 또는 배분에서 새로운 내용을 요청하게 된 현실도 문제로 등장하지만, 이런 변화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큰 요인이라 하겠다. 즉, 교양국어 과목은 각 대학마다 한 학년 전부가 대개 두 학기에 걸쳐 수강하는 과목이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데 반해, 대부분의 국어국문학과는 적은 인력으로 학부 전공과 부전공,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양국어 과목은 대개 시간강사라는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교과 내용의 효율적인 설정이나 이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실제 강의와 연습에 편의를 도모하는 교재 작성 등은 강의의 방향을 설정하고

학사 문제에 관여할 기회가 없는 시간강사로서는 치밀한 강의 계획의 실현이 어려운 형편이다. 교양국어 전담의 전임 교수를 별도로 두거나 시간강사를 교양과목 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킬 길을 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교양국어의 의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맺음말

어느 때이거나 어느 교과과정이거나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지 않으면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또 현실과 어긋난다 하여 대안 없이 무조건 과목을 폐쇄한다거나 잠정적으로 과목을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강의가 이루어지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축적하여 전체의 골격을 바꾸는 점차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해 온 몇 가지 사항 이외에도 교재 개발이나 수업계획서의 활용, 적절한 과제부와 및 수업방법의 개선 등 효율적인 강의를 위한 여러 관점과 컴퓨터 기기나 복사기, 과별 장서의 확보 등 교육시설이나 학습환경에 관한 것도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세부적으로 방언 연구나 구비문학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 답사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을 학습하는 과목이 개설될 것도 기대해 본다. ▣

박종철/서강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마친 후, 강원대 교수를 거쳐 현재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문학과 기호학』(편역) 등이 있고, 논문으로 “문학과 언어학” 외 다수를 발표했다.